#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지배구조·조직거취는 안갯속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한화솔루션 등 기업공시 심사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엇박자’**

**지배구조 등 예고 정책 구체화해야**
**금감원, 개각·지방이전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감독행정의 전면에 내세웠다.

자본시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시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발언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은 논란을 남겼다. 개각과 금감원 지방 이전 가능성도 취임 2년 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일반주주 보호 확대**

이 원장의 자본시장 정책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일반주주 보호로 요약된다. 혐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와 시장 퇴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특사경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혐의 사건 2건이 수사로 전환됐고 7월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기사 송출 전 주식을 매매한 기자와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고위 임원,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며 선행매매한 핀플루언서 등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검찰 등이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다.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공시 심사도 강화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정정을 요구해 증자 규모 축소를 이끌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는 주주간담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유도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5.2%에서 8.2%로 높아졌다. 지난 1분기 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곳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으로 공급한 모험자본도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5.7% 증가했다.

**◆ 사전 예방 내세웠지만 레버리지 ETF는 ‘엇박자’**

금융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사고 전에 위험을 막겠다는 것이 이 원장이 내세운 감독 기조였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무구조도 안착에 힘을 쏟았고 금융지주와 은행·증권·보험사도 내부통제 조직과 점검 체계를 정비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사후 구제에서 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위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는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전 예방 기조와 엇박자를 냈다.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허용한 뒤 과열과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기본예탁금 3000만원, 모의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잇달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도박판에 뽀찌(도박판에서 딴 돈의 일부를 남에게 떼어주는 돈) 받는 사람이 배불리는 모양새”라며 “그때 드러누웠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였지만 상품 출시 후 감독당국 수장이 도입 과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과 감경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재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보완할 부분으로 꼽힌다.

**◆ 지배구조 개선 지연…금감원 이전도 변수**

취임 2년 차에는 예고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회를 통해 ‘참호’를 구축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개선안이 다음 달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고 6월에는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확정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EO 3연임 제한 등을 둘러싼 조율이 길어지면서 개선안은 8월에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 원장과 금감원의 거취도 불확실하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경제·금융당국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방 이전 가능성과도 마주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금감원 일부 기능의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금감원 본원을 이전하려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검사·감독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기획·지원 부문만 옮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전 대상과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취임 2년 차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CJ CGV, 대작·특별관 흥행 업고 성장세

**올해 영업익 690억, 내년 1120억 전망**
**상반기 특별관 관객, 전년比 49% 늘어**
**국내사업 적자·재무부담은 고려해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자정 회차인데도 ‘오디세이’는 매진이더라고요. A열 중앙이라도 보려고요.”

‘오디세이’는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관에서 앞줄까지 예매가 몰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를 크게 웃도는 판매 글도 등장할 정도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역시 4DX와 SCREENX를 중심으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달 16일 52주 최저가인 4150원까지 떨어졌던 CJ CGV 주가는 13일 5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점 대비 상승률은 27.5%로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권가는 신작 공급과 특별관 성장,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할 여력을 두고는 판단이 달랐다.

대신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을 690억원, 내년에는 1120억원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유지했다. 국내 분기 관객이 3000만명에 도달하면 국내 사업에서 약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J 4DPLEX의 해외 확대와 국내 관객 회복이 이어질 경우 기업가치 평가배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두 작품의 누적 관객 수는 약 900만5000명에 달한다. 상반기 일반관 중심의 회복에 이어 하반기에는 할리우드 대작을 특별관에서 반복 관람하는 수요가 두드러졌다.

특별관 수요 확대는 관련 포맷과 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의 3분기 실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4DX와 SCREENX는 자회사 CJ 4DPLEX가 운영해 티켓 판매뿐 아니라 연결 실적에도 직접 반영된다. 상반기 특별관 관객은 약 29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늘었다. 8월 기준 특별관은 전체 관객의 13.3%를 차지했지만 박스오피스 매출 비중은 19.0%에 달했다.

특히 SCREENX와 4DX는 CJ CGV의 종속회사 CJ 4DPLEX가 운영하는 포맷이다. 해외 극장에 기술과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국내 관객 회복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적자 점포 폐점과 임차료 절감도 같은 관객 수에서 이익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증권은 목표주가를 17% 올린 6200원으로 제시했했다. 비용 효율화와 특별관 사업가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사업 적자와 재무 부담을 고려해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분기당 약 500억원 안팎의 금융비용이 지속되는 등 재무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신 확정 재무제표인 1분기 말 기준 사채·차입금은 1조4524억원, 리스부채는 약 1조4421억원이었다. 1분기 금융원가는 511억원으로 영업이익 87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CJ CGV는 지난 4월과 5월 총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존 전환사채와 신종자본증권, 기타 차입금을 상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지급 부담은 남는다. 2분기 잠정실적에는 차입금과 금융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조달 이후 재무지표는 추후 나올 반기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용평가사도 재무구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월 회사채 ‘A-’와 신종자본증권 ‘BBB+’ 등급을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국내 영화관의 더딘 회복과 자체 현금창출력을 통한 차입금 감축 지연을 반영한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 LG이노텍,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HLB·LG디스플레이 등 4곳은 제외**

LG이노텍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HLB와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수에서 빠진다.

13일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가 발표한 8월 정기 리뷰 결과에 따르면 LG이노텍은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

편출 종목은 HLB와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홀딩스 등 4개다. 이번 정기 리뷰에서 국내 종목은 1개가 들어가고 4개가 빠지면서 구성 종목 수가 3개 줄어들게 됐다.

이번 변경은 오는 31일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을 거쳐 9월 1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도 이에 맞춰 LG이노텍을 매수하고 편출되는 4개 종목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리뷰 결과가 발표된 뒤 LG이노텍은 이날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다. 오전 8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97% 오른 63만4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편출 종목 가운데 HLB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0.36% 하락했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0.12% 상승했다. /허정윤 기자

# 코스콤-NH투자證, 토큰증권 플랫폼 ‘맞손’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왼쪽부터)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코스콤과 NH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비해 공동 플랫폼과 사업모델 검증에 나선다.

코스콤과 NH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상품과 고객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NH투자증권은 코스콤이 구축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한다.

양사는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토큰증권 발행·계좌관리 업무를 연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